

## 중·한번역의 실제로부터 본 한글의 중국어 표기법 -인명, 지명에 대한 표기를 중심으로

김 철\*

### 1. 머리말

주지하다시피 한글 <외래어 표기법>은 1933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후로 이미 수차례 논의와 수정을 거쳐 오늘과 같이 비교적 완벽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sup>1</sup>. 이 과정에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중국어 표기법도 줄곧 수정, 보완되어 왔지만 중국어 표기법은 냉전체제하에서 양국 교류가 단절되었던 관계로 오랜 시기 동안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다행히 획기적인 1992년 한중 수교를 맞아 점차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특히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의 교류 및 협력이 활성화 되면서 “외래어 표기법” 중의 중국어 표기 규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났다. 최근 들어 그 관심은 크게 고조되어 현행 중국어 표기법을 중심으로 치열한 논쟁까지 펼쳐지고 있다. 각종 언론이나 학회지를 통한 논쟁은 대체로 기존의 규정을 계속 계승해야 한다는 견해와 현행 중국어 표기가 현실적으로 낙후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롭게 개혁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어 논의가 진행되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본 논쟁의 중심은 중국어 표기에서 인명, 지명 등에 대한 표기를 “현지 원음”을 따르느냐 아니면 한국의 전통적인 한자음을 따르느냐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이 논쟁의 실질을 보면 기성세대들과 신세대들 간의 인식적 차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성세대들은 중국의 인명, 지명을 고유의 한자독음으로 표기할 것을 주장하지만 신세대들은 이를 거부하면서 새로운 방법 모색과 ‘현지 원음’대로 표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대립된 양쪽은 다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어느 일방도 합리적인 중국어 표기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많다. 더구나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을 막론하고 중국어 표기문제상에서 혼선이 빚어져 일상 언어생활에 불편이 적지 않다. 한글의 중국어 표기법은 어떤 의미에서는 외래어번역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가 중·한번역을 논할 때 왕왕 한자독음역법과 음차역법을 논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관계때문이다. 한글의 중국어 표기 규정은 현재는 물론 장래 중·한(한·중)도 일정한 영향이 있음)번역이론과 실천, 그리고 양국 문화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여러 전문가, 학자들은 무의미한 논쟁만으로 시간을 허비지 말고 서로의 지혜를 모아 하루 빨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도움이 되는 보다 이상적인 중국어 표기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본 논문은 향후 보다 합리적인 한글 중국어 표기법 모색을 위해 한국사

\* 산동대학교 한국학대학

<sup>1</sup> 이현복, 임흥빈 등, 『한글 맞춤법, 무엇이 문제인가?』, 태학사, 1997년, 204페이지 참조. 당시 조선어학회에서 만들었음.

람들의 시각이 아닌 중국사람들의 입장, 그리고 중·한 번역의 시각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글 중국어 표기법, 그중에서도 주로 인명, 지명 등에 대한 표기법 규정과 기타 문제들을 중심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천명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논의의 편의를 위해 한국 문교부 고시·문화부 공고·문화체육부 고시 “국어 어문 규정집”(1996.4)을 연구 텍스트로 선정하였다.<sup>2</sup> 그리고 중국어 표기법중 인명, 지명 등에 대한 표기에서 낙후된 점과 새롭게 대두된 문제점들을 조목별로 밝히면서 현재 중·한번역실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 현행 중국어 표기법 개혁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천명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중국어 표기 규정을 만드는데 작은 힘이나마 일조하고자 한다.

## 11. 중국어 표기 규정이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

앞에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한글 <외래어 표기법>은 1933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만들어진 중국어 표기 규정은 내용이 빈약한데다가 현실적으로 “통일안”을 실시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해서 사실상 제역할을 다 할 수 없었다. 1948년에 와서야 중국어 표기에 대해 새롭게 규정안이 나오게 되었고 또, 그 당시 만들어진 표기 규정이 훗날 중국어 표기 규정의 기틀이 되기도 하였다.<sup>3</sup> 그 뒤로, <외래어 표기법>은 대한민국 문교부가 주최한 1958년 <외래어 표기법> 수정을 비롯하여, 1960년, 1963년, 1986년, 그리고 1995년 수정까지, 무려 5~6차례 달하는 수정과 보완을 거쳐왔다. 이 과정에 중국어 표기에 대한 규정도 여러 번 수정, 보완되어 왔다.<sup>4</sup>

아쉬운 것은 한중 수교 이후, 17년이란 긴 세월 동안 양국 간의 관계에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와 관련한 표기 규정은 확실한 대응책이 없이 현재까지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 중간에 1995년 “국어표기법” 개정과 같은 수정이 있었기는 했지만 중국어 표기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들이 적지 않다.

본장에서는 중국사람들의 입장에서 한국에서 제정한 중국어 표기 규정(즉 중국어 병음 표기방식) 중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들을 집중 검토해 보고자 한다.

### 1. 과거인과 현대인의 구분 문제

한국에서 만든 <외래어 표기법><sup>5</sup> 제 4 장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의 제 2 절 제 1 항에는 동양의 인명 및 지명에 대한 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sup>2</sup> 문화체육부, 『국어 어문 규정집』,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6년

<sup>3</sup> 1948년 대한민국 문교부 학술용어제정위원회 제20분과 언어과학위원회에서 정한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의 나라 이름, 따 이름”과 “중국의 사람 이름”에 대한 한글표기 기준을 공식 제시했다.

<sup>4</sup> 남북이 분단된 후, 한국 문교부에서는 선후로 1958년, 1986년, 1995년 3차례 걸쳐 공식적인 개정을 진행했다. 그중 중국어표기와 관련하여 1986년1월 7일에 한국문교부는 ‘고시 제85-11호’ ‘외래어 표기법’을 통해 중국어의 주음부호(주음부호)와 한글 대조표’를 제공하고 중국어의 병음표기를 권장하기 시작했고 1991년에 이르러 다시 한 번 수정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sup>5</sup> 문화체육부, 『국어 어문 규정집』,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6년, 363페이지 참조.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이에 대해서 <외래어 표기법 해설>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중국 인명에 대한 과거나 현대의 구분은 대체로 종래와 같이 신해혁명(辛亥革命)을 분기점으로 한다. 다만, 현대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한자음으로 읽는 관행이 있는 인명에 대하여는 ‘장개석’(蔣介石), ‘모택동’(毛澤東)과 같은 표기를 관용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sup>6</sup>

위의 표기 규정을 보면 그 당시 정책자들이 전통을 살리는 한편 당시 현실과 새롭게 대두할 사회문화발전의 추이도 골고루 고려하고자 했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모든 비합리적인 것들은 변화하기 마련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 역사에서 쑨중산(孫中山)이 주도한 “신해혁명(辛亥革命)”은 중국이 봉건국가로부터 근대국가로 바뀌어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혁명으로서 정치, 문화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그렇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이 기점을 굳이 만들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필자가 알건대 한국에서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소위 말하는 “현대인”과 “과거인”의 구별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번거롭다는 것이다. 사실 중국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이나 소위 번역자(실제 번역/통역을 담당하고 있는 번역자/통역관, 번역을 배우는 학생들을 포함함)들도 마찬가지이다. 그 많은 인물이나 지명을 다 자세히 기억할 수도 없고 또한 그런 기준에 맞추다 보면 귀찮고 번거롭기 짝이 없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시간적으로 이미 한 세기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점으로 정해 놓고 후대들에게 현대인과 과거인을 구분하라고 하면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너무나 낙오된 생각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중국학생들의 경우 번역과수업에서 일단 중국어 원문 중에 “康有为”, “梁启超”, “胡适”, “孙中山”, “毛泽东” 등 자기들이 익숙한 근현대 인물들이 나오면 아주 손쉽게 번역한다. 그렇지만 번역은 제 나름이다. “康有为”는 “강유위” 또는 “강유위이”, “강유웨이”로, “梁启超”는 “양계초”, 또는 “량치초우”로 번역하기도 한다. 이런 결과가 생기는 원인은 위에서 언급한 인물들이 다가 “신해혁명” 전후시기를 산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표기법 해설에 “다만, 현대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한자음으로 읽는 관행이 있는 인명에 대하여는 ‘장개석’(蔣介石), ‘모택동’(毛澤東)과 같은 표기를 관용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충적인 규정은 했지만 실제 어떤 경우가 관행이 있는 인명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孫中山을 “손중산”으로 번역하느냐 아니면 “쑨중산(孫中山)”으로 번역하느냐? 梁启超를 “양계초”로 번역하느냐 아니면 “량치초우”로 번역하느냐, 또 胡适은 “호적”으로 번역하느냐 아니면 “후우스/후우쓰”로 번역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시비를 하다가 보면 나중엔 과거인과 현대인을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 규정을 지키기도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특히 현재 젊은 세대들은 거의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위의 규정에서처럼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는 분기점을 “辛亥革命”으로 잡은 것

<sup>6</sup> 동상서, 375-376페이지 참조.

은 아무래도 신통치가 않다.

그리고 또 <표기법>에서는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고 규정했는데 역시 애매한 규정이라고 본다. 이말의 뜻은 표기/번역하는 자의 판단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 역시 문제점이 있다. 아래와 같은 문장들을 보면 그 문제점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한국의 연합뉴스에서 발간한 <고국소식>[2](2008)에는 “**한경, 장리인, 베이징올림픽 기념행사 참석**”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보도기사가 실려 있다.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과** 중국 출신 **여가수 장리인**이 2008 베이징올림픽 D-200 일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sup>7</sup>

여기서 나오는 소위 현대인들인 “한경”과 “장리인”은 기자가 관례를 무시하고 자의로 그 인명 뒤에 한자를 병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한국에서 출판한 교재(중국 학생 대상)들과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들에서도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자를 병기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여기서는 중국의 경우만 예를 들어 보겠다. 중국에서 유명한 출판사인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에서 펴낸 한국어 교재 ‘走遍韩国’(2)(2007년 출판)에서는 여러 명의 중국인 학생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전부 다 한자를 병기하지 않고 있다. “취페이”, “호우용이”, “짱쨌웨이”, “턴리”, “링링”, “고쑹” 등과 같이 정체를 모를 이름들이 난무하고 있다. 원래 중국 이름은 글짜마다 의미를 갖고 있는데 漢字를 병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의 정체를 전혀 알 수가 없고 서로 변별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중·한번역을 공부하는 학습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만약 중·한번역에서 인명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놓는다면 정말로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인인 경우 반드시 모든 경우에 한자를 병기하도록 확실하게 규정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 2. 지명 표기에 대한 규정

지명에 대한 표기법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있다. <외래어 표기법> 제 4 장 제 2 절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의 제 2 항에는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고 적혀 있다.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 해설>에서는 중국 지명에 대해 아래와 보충, 설명하고 있다.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하며…… ‘臺灣’은 ‘타이완’, ‘대만’ 등으로 적도록 하였다. 같은 중국 지명이라 하더라도 ‘哈爾濱’ 같은 것은 원지음대로 ‘하얼빈’이라 하고 ‘합이빈’이라 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규정에는 웬만한 중국 역사지식을 갖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아주 많다. 서로 다른 민족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시점

<sup>7</sup> 연합뉴스, 『고국소식』 [2](2008), 40페이지 참조.

에서 이와 같은 어려운 규정들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인명에 대한 표기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지명에 대한 표기에서도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는 말은 역시 애매한 말인 것 같다. 다음의 번역문을 잠깐 보기로 한다.

**원문:** 云南省地处中国西南边陲, ……北回归线横贯云南南部。 东邻广西壮族自治区及贵州省, 北邻四川省, 西北紧倚西藏自治区。

**역문:** “윈난성은 중국 서남변경에 위치하고, 북회귀선이 윈난 남부를 가로 지른다. …… 동쪽으로 이웃의 광시좡족지역 및 구이저우성과 이웃해 있고 북쪽으로는 쓰촨성과 인접하고, 서쪽으로는 테베트자치구를 기대어있다.”<sup>8</sup> (원래 문법적으로 틀린 번역문장을 고치도록 만든 연습문제임)

이 역문에서 문법적인 오류는 제쳐 놓고 지명에 대한 번역만 논의한다면 지명을 중국어 발음 대로 적었는데 한자를 병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마땅히 매 지명 뒤에, “雲南省”, “雲南”, “廣西壯族”, “貴州省”, “四川省”, “西藏” 등으로 한자표기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중국 매체나 한국 매체들에서 종종 볼 수 있다. 2008 년 <고국소식>[2]에도 “중국 초등학교, 제주서 민속공연”이란 제목 밑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중국 라오닝(遼寧)성, 다롄(大連)의 치스지오초등학교 4 학년 텐총회의 양은 1 월 22 일 오전 제주도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조롱박으로 만든 중국 전통악기인 후르쓰로 대장군의 주제가를 연주했다. ……”<sup>9</sup>

이 문장에서 큰 지명은 별문제가 없지만 밑줄 그은 부분의 지명, 인명, 그리고 악기의 이름 등에 대한 표기에는 문제가 있다. 즉 학교명 ‘치스지오’와 인명 ‘텐총회의’, 악기명 ‘후르쓰’ 등에 한자를 병기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여기서 “후르쓰”(葫芦丝)는 인명도 지명도 아니다. 중국 윈난(雲南)지역 소수민족 전통악기명인데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악기라서 괜찮겠지만 나머지 지명 “치스지오”, 인명 “텐총회의” 뒤에는 한자를 병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알 수 없다. 보다시피 역시 번거롭더라도 해도 한자를 병기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외에 위의 인용문 중의 “臺灣”은 ‘타이완’, ‘대만’ 등으로 적도록 하였다. 같은 중국 지명이라 하더라도 ‘哈爾濱’ 같은 것은 원지음대로 ‘하얼빈’이라 하고 ‘합이빈’이라 하지는 않는다.”라는 해설이 있는데 여기서 “臺灣”은 엄격하게 말하면 “台湾”으로, “哈爾濱”은 “哈尔滨”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 대목은 과거의 낙후된 표기법상황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인 부분이기도 한데, 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이후, 6 년이 지난 1956 년부터 번체자 사용 폐지, 간체자 사용 권장 정책을 펴면서 현재는 모든 문자생활에서 다간체자를 사용하고 있다.<sup>10</sup> 그리하여 위의 규정에

<sup>8</sup> 주석봉 저, 『중한 번역교정』, 료녕인민출판사, 2006년, 130페이지 참조.

<sup>9</sup> 연합뉴스, <고국소식>[2](2008년), 18페이지 참조.

<sup>10</sup> 일찍 1935년 8월 21일에 중화민국정부교육부에서 《第一批简体字表》을 발표한바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후, 1956년 1월 28일에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에는 “汉字简化方案”을 심의, 통과시킴으로써 汉字(중국어)의 간체화사업이 실질적으로 국가화, 법률화 되었다.

서 쓴 것과같은 ‘臺灣’, ‘哈爾濱’ 따위의 번체자는 현재 중국 대륙(台灣성 제외)의 공식적인 서류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위의 번체자는 한국 사람들을 배려한 것임은 이해가 가겠지만 외국어인 중국어를 지칭하는 말로 썼다면 엄격한 의미에서 틀리는 표현이라고 본다. 그리고 또 위의 제 2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의 지명이 하도 많은데다가 도대체 어느 것이 관용(慣用)이고 어느 것이 관용(慣用)이 아닌지가 중국 사람들로서는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 3. 종전의 한자독음 표기나 중국어 원음대로 표기나 하는 문제

종전의 한자 독음으로 표기하느냐 아니면 중국어 발음으로 표기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현재까지는 후자가 우세를 점하고 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전통을 중요시하는 기성세대와 새로운 사물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난 신세대 간의 차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하여간 <외래어 표기법> 중의 중국어 표기 규정에는 한자독음, 또는 현지 원음으로 적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한자독음의 표기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 언론 매체들은 다 중국어 발음을 한국어 독음으로 표기하지 않고 중국어 원음으로 표기하는 게 새로운 추세이다. 이러 현상으로부터 우리는 이와 같은 표기법이 그 만큼 설득력이 있고 사회적인 호응을 얻고 있음을 보아낼 수 있다.

때문에 향후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된다는 중국어 표기 규정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고 표기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불확실한 표기법 때문에 중국의 한국어학습자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심지어는 중국의 동포들조차도 분명 같은 한국어사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에서 발행되는 신문, 잡지들도 자주 혼동에 빠져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2009년 9월 1일 <길림신문> -‘특간 한국어 村’<sup>11</sup>에는 “‘영웅의 도시’에 한국어 요람 우뚝”이란 제목 아래 이런 기사가 실려 있다.

“지난 8월 11일 한국 대불대학(大佛大學) 한중교류학원 윤상기(尹相基) 원장을 대표로 한 한국합작측과 박달학원(博達學院) 장백령(張白玲) 원장, 감사회 장위(張偉) 주석, 왕신(王申), 양효연(楊曉燕) 부원장 등 중국합작측 책임자들이 동석한 가운데 길림사범대학 박달학원에서 한국학학원 제막의식(揭幕儀式)이 있었다.”

취지가 중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만든 한국어학습란이라고 하기에 이해는 좀 가지지만한자음독법으로 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자로 병기해야 할 자리에다가 간체자 중국어를 써넣은 점이 어쩐지 어색하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중국 학생습자들이 이런 기사를 보면 어리둥절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분명 <외래어 표기법> 중의 중국어 표기에서 인명, 지명을 필요에 따라 병기해야 한다는 규정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의 인명, 지명을 중국 현지음으로 표기하느냐 아니면 한자독음으로 표기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상응한 규정들의 불확실성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sup>11</sup> <길림신문-특간 한국어 村>, 2009년 09월 01일, 화요일 제17호 2면 ‘교육 동태’면 참조.

최근에는 중국어 인명이나 지명 등과 같은 고유명사를 한국 한자독음으로 표기할 지 아니면 중국어 병음 통일안에 따라 원음으로 옮길지는 글쓴이나 번역자들이 텍스트의 문장 성격이나 시대성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2</sup>는 견해들도 일부 있는데 이는 실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매우 큰 부담과 어려움만 갖다 준다. 역시 바람직한 견해가 아니다.

#### 4. 음절표기에서 보완해야 할 문제

외국어로서의 중국어를 중국어 원음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하려면 현행 중국어 표기 규정 중의 “중국어의 주음 부호(注音符號)와 한글 대조표”를 다시 좀더 구체적으로 잘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어에 자음(19개), 모음이 있듯이 중국어에도 聲母(자음에 해당, 21개)와 韻母(모음에 해당, 38)이 있다. 중국어의 聲母는 한국어의 자음에 해당하고 韻母는 한국어의 모음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통점이 한국어와 중국어 음절체계에서 근사하게 대응되는 점들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중국어의 주음 부호(注音符號)와 한글 대조표”를 보면 몇 가지만 빼면 거의 일대일 대응으로 되어 있다. (아래 표 참고)

성 모(聲母)									
음의 분류	주음 부호	한어 병음 자모	웨이드 식 로마자	한글	음의 분류	주음 부호	한어 병음 자모	웨이드 식 로마자	한글
중순성 (重脣聲)	ㄅ	b	p	ㅂ	설면성 (舌面聲)	ㄐ	j	ch	ㅈ
	ㄆ	p	p'	ㅍ		ㄑ	q	ch'	ㅊ
	ㄇ	m	m	ㅁ		ㄒ	x	hs	ㅅ
순치성 (脣齒聲)	ㄈ	f	f	ㅍ	교설첨성 (翹舌尖聲)	ㄗ	zh [zhi]	ch [chih]	ㅈ [즈]
설첨성 (舌尖聲)	ㄊ	d	t	ㄷ		ㄘ	ch [chi]	ch' [ch'ih]	ㅊ [즈]
	ㄊ	t	t'	ㅌ		ㄑ	sh [shi]	sh [shih]	ㅅ [스]
	ㄋ	n	n	ㄴ		ㄒ	r [ri]	j [jih]	ㄹ [르]
설근성 (舌根聲)	ㄌ	l	l	ㄹ	설치성 (舌齒聲)	ㄗ	z [zi]	ts [tzü]	ㅈ [즈]
	ㄍ	g	k	ㄱ		ㄘ	c [ci]	ts' [tzü]	ㅊ [즈]
	ㄎ	k	k'	ㅋ		ㄑ	s [si]	s [ssü]	ㅅ [쓰]

<sup>12</sup> 张敏, 金宣希[한] 编著, 『中韩翻译教程』, 北京大学出版社, 2005年, 324페이지 참조.

		ㄱ	h	h	ㅎ				
운 모(韻母)									
음의 분류	주음 부호	한어 병음 자모	웨이드 식 로 마 자	한글	음의 분류	주음 부호	한어 병음 자모	웨이드 식 로 마 자	한글
단운 單韻	ㄚ	a	a	아	齊齒類	ㄚ	yai	yai	야이
	ㅛ	o	o	오		ㄚ	yao (iao)	yao (iao)	야오
	ㅜ	e	ê	어		ㄚ	you (ou, iu)	yu (iu)	유
	ㅟ	ê	e	에		ㄚ	yan (ian)	yen (ien)	옌
	ㅣ	yi (i)	i	이		ㄚ	yin (in)	yin (in)	인
	ㅜ	wu (u)	wu (u)	우		ㄚ	yang (iang)	yang (iang)	양
	ㅟ	yu (u)	yü (ü)	위		ㄚ	ying (ing)	ying (ing)	잉
복운 複韻	ㅛ	ai	ai	아이	結合韻母	ㄚ	wa (ua)	wa (ua)	와
	ㅟ	ei	ei	에이		ㄚ	wo (uo)	wo (uo)	위
	ㅛ	ao	ao	아오		ㄚ	wai (uai)	wai (uai)	와이
	ㅜ	ou	ou	어우		ㄚ	wei (ui)	wei (uei, ui)	웨이 (우이)
부성운 附聲韻	ㅛ	an	an	안	合口類	ㄚ	wan (uan)	wan (uan)	완
	ㅜ	en	ên	언		ㄚ	wen (un)	wên (un)	윈 (운)
	ㅜ	ang	ang	앙		ㄚ	wang (uang)	wang (uang)	왕
	ㄱ	eng	êng	엥		ㄚ	weng (ong)	wêng (ung)	웡 (웅)
권설운*	ㄹ	er (r)	êrh	얼	撮口類	ㄚ	yue (ue)	yüeh (üeh)	웨
제치류	ㅣ	ya (ia)	ya (ia)	야		ㄚ	yuan (uan)	yüan (üan)	위안
	ㅛ	yo	yo	요		ㄚ	yun (un)	yün (ün)	윈



	ㅛ	ye (ie)	yeh (ieh)	예		ㄹ	yong (iong)	yung (iung)	용
--	---	------------	--------------	---	--	---	----------------	----------------	---

[ ]는 단독 발음될 경우의 표기임.  
( )는 자음이 선행할 경우의 표기임.  
\*순치성(脣齒聲), 권설음(捲舌韻)

그렇지만 필경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언어인 까닭에 같지 않은 점이 있다. 특히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어에 없는 3 중 모음이 중국어에 있는데 이에 대한 표기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지를 좀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元 yuan(uan)”, “强 qiang(iang)” 등과 같은 발음은 현재의 “위안”보다는 “위엔”으로, “창”보다는 “치양”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기가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중국어 발음에 가깝게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 사용상황을 보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가끔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요즘에 매체 많이 등장하는 중국의 정치가, 수석 부총리인 李克强을 “리커창 李克强 Li Keqiang”이라고 표기(번역)하였다.<sup>13</sup>

여기서 “리커창”이라는 표기보다는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리커치양(李剋强)”, 또는 “리커창(李剋强)”이란 표기(번역)가 더 알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예를 든다면 중국의 전 중국공산당 서기 “江泽民”을 “장쩌민(江澤民)”<sup>14</sup>으로 표기하기 보다는 “장쩌민”이 더 가깝다. 중국어 병음(발음)에서 “yang(iang)”과 “ang”의 차이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음절의 발음을 다 같게 “장”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도리가 없다. 때문에 “张”은 “장”으로 표기해도 무방하나 “江”을 “장”으로 표기하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연예인 “王家卫”도 마찬가지로 “왕자웨이”보다 “왕자웨이(王家衛)”로 표기하는 게 더 알맞다. 하여튼 이런 표기들이 신문, 잡지, 인터넷에서 난무하기 때문에 중국의 중한번역자들이나 한국어학습자들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2 음절이나 단음절이냐가 잘 알려지 않는 것들도 통일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규정과 예문을 들어 제시해 주면 앞으로 사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예를 들어 “다렌”이나 “다리엔(大連)”을 표기하는 것도 어느 하나로 규정해 놓으면 좋겠다. 그리고 초성에도 일부 된소리가 오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어의 “d”발음의 경우, 중국의 전 국가주석이었던 “邓小平”을 “등쇼우핑”이라 하기 보다는 “땡쇼우핑(鄧小平, Deng Xiaoping)”이라고 표기(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며 중국의 석유도시 “大庆市”를 한국어로 표기(번역)할 경우 “다칭시(大慶市)” 보다는 “땡칭시”가 더 적절하다고 본다.

요컨대 중국어 韻母 및 聲母에 대응되는 한국어 표기에는 아직도 일부 수정보완 해야 할 점들이 있는바 이면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검토와 확실한 규정이 필요하다.

<sup>13</sup> 국립국어원, 『새국어생활』, 2009년 제19권, 제3호, 159페이지, 167페이지 참조.

<sup>14</sup> 张敏, 金宣希[한] 编著, 『中韩翻译教程』, 北京大学出版社, 2005年, 324페이지 참조. 주석봉의 “중한번역교정”(156페이지)에서는 한국에서 음차한 중국어라고 하면서 “칭또우, 상하이, 땡쇼핑” 등과 같은 표기를 쓰고 있는데 발음표기가 사뭇 다르다.

### III. 중국어 표기 규정에 대한 몇 가지 제안

중국인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한글 중국어 표기법 중의 인명, 지명표기에 대해 몇가지 제안한다.

**첫째**, 중국어 인명, 지명표기 규정에서 “신해혁명”을 기준으로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별하여 표기한다는 대목을 다시 심사숙고하여 점차 수정했으면 좋겠다. 시간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세월이 가면 역시 과거인이 되고 뒷날의 사람들이 다시 현대인이 되는 것이다. 인류역사는 이렇게 끊임없이 교체되면서 흘러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간의 상대성 원리를 무시하고 굳이 이런 기점을 강조한다면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아예 “辛亥革命” 이전의 인명, 지명이나 그 후의 인명, 지명이나를 막론하고 다 중국어 발음으로 표기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하면 중국의 한국어학습자들이 대단히 편하게 쓸 수가 있으며 나아가 향후 중·한 교류나 언어생활에서 편리할 수 있다. 이점에서는 아마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재 이런 흐름이 주류가 되어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둘째**, 한자독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어 발음으로 표기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필자가 보건대는 중국어 인명, 지명만을 전부 현지 중국어 발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오늘 사회문화 발전추세에 맞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에 대한 논쟁에서 기성세대들은 중국의 인명, 지명을 고유의 한자독음으로 적자고 주장하지만 신세대들은 이를 거부하면서 새로운 방법 모색, ‘현지 원음’대로 표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이미 막을 수 없는 경향으로 되었다. 세월이 가면 모든 것이 바뀌기 마련이다. 아예 이런저런 번거로움만 주는 현재의 중국어 표기법을 개혁하여 본국 국민들이나 중국사람들이 기억하고 구분하는데 편리한 표기법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실제 이렇게 하는데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한다고 통일적으로 일관성이 있게 규정하면 그만이다. 아무리 먼 옛날의 인명, 지명이라 해도 현재 중국어 발음으로 표기한다면 별이상할 것도 없고 자연스럽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한국에서 고대로부터 다 잘 알려진 “李白”을 “리빠이(李白)”로, “杜甫”를 “두푸(杜甫)”로 “王維”를 “왕웨이(王維)”로, 또 “孔子”를 “쿵즈(孔子)”로 표기해도 별 어색한 것이 없다. 기타의 모든 인명, 지명도 마찬가지로 실제 언어생활에서 이와 같이 써도 별 불편함도 없다. 어디까지나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여 언어생활을 편리하게 하는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표기나 번역에서 혼선이 없도록 하나로 통일된 규정을 만들면 될 것이다.

**셋째**, 중국어 표기법에서 좀 더 확실하고 자세한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중국어 인명, 지명을 ‘현지 원음’으로 표기(번역)하되 반드시 한자를 병기해야 한다는 규정 같은 것들은 분명히 해 주면 좋겠다. 혹은 번거롭더라도 “시진핑 習近平, Xi Jinping”(중국의 국가 부주석)표기와 같이 중국어 병음을 함께 표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사실 현재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중국어 발음” 표기방법은 필경은 우리 말로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한자를 반드시 병기해야 한다는 조목만 추가로 규정해 놓으면 더 완벽한 규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유의 한자는 한자대로 계속 존속할 것이며 동시에 중국어 발음도 순수한 한글로 표기하기 때문에 우리말이 쇠락할 염려도 없다. 또한 한자병기형식은

중국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수용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중국어 발음의 음절과 한글 발음의 음절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어떻게 대응시킬지를 자세히 연구하여 나중에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어의 3 음절에 대한 한글표기를 좀 더 적절한 표기로 자세하게 규정지어 주면 좋겠다.

넷째, 정부차원에서 중국어 표기법을 새롭게 다시 개정하여 모든 언론 매체들이 통일적으로 실행하도록 엄격하게 감독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언론 매체의 언어들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나름대로 표기하는 경향이 많아 중국 사람들에게 많은 혼란을 준다.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나라 차원에서 한국의 “국립국어원”과 같이 권위성이 있는 기관들을 활용하여 하나의 채널을 통해 통일된 기준으로 수시로 중국어 인명, 지명 표기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사용방법과 표기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실제 사용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중국은 이면에서 상당히 엄격하다.

#### IV. 맺음말

이상 한글의 중국어 표기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중국사람들의 입장에서 짚어보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천명하였다. 시대는 계속 변화,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중·한 양국의 관계도 여전히 변화, 발전하는 과정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중국어 표기법도 현실에 맞게 새롭게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언어학자들의 몫이다. 언어학자들은 일반 사회언어생활에서 생기는 변화에 대해 주시하면서 시기에 맞는 합리적인 언어들을 정리함으로써 우리의 언어생활이 보다 활기차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언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의무이다. 특히 현재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중국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 중국어 표기법을 잘 검토하면서 자국의 실정과 중한 양국 교류에 도움이 되는 중국어 표기법을 하루 빨리 만들어내야 한다.

한편 이 과정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정부차원의 관심과 효과적인 대책 마련 및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이다. 아무튼 발전하는 시대에 부합되지 않고 일상 언어생활에서 사용자들을 힘들게 하고 불편을 주는 낙후한 표기법은 마땅히 개정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직 학계와 정부, 그리고 언어생활의 주체가 되는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만이 이러한 목표가 현실화 될 수 있다.

머지 않은 장래에 사회변화 및 발전에 맞는 새롭고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중국어 표기법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상 깊이 못한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으로서 적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을 줄로 안다. 여러 전문가, 학자들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바란다.



## 참고 문헌

1. 문화체육부, 『국어 어문 규정집』,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6년.
2. 전영표(全泳杓), 『개정판 새 국어 표기법』, 통일출판사, 1996년.
3. 이현복, 임홍빈 등, 『한글 맞춤법, 무엇이 문제인가?』, 태학사, 1997년.
4. 史峰 主编, 《韩国语外来语词典》, 商务印书馆, 2002년.
5. 张敏, 金宣希[한] 编著, 『中韩翻译教程』, 北京大学出版社, 2005년.
6. 이호권, 고성환 공저, 『맞춤법과 표준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년.

7. 국립국어원, 『새국어생활』, 대우문화인쇄, 2009년 제19권 제3호.  
1935년8월21日, 中华民国政府教育部颁布《第一批简体字表》。收字324个。一直到1956年1月28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审定通过了《汉字简化方案》。目前流行的简化汉字(简体字),基本上以此为基础。目前中华人民共和国政府认可的简化汉字共有2235个。汉字的简化才真正的被国家化和法律化。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후, 1956년 1월 28일에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에는 “漢字簡化方案”을 심의, 통과시킴으로써 漢字(중국어)의 간체화사업이 실질적으로 국가화, 법률화 되었다.

“짜장면”은 “자장면”이다.

“자장면”은 중국에서 들어온 낱말이다. “짜장면”과 “초우면”.

“자장면”은 중국으로부터 직접 차용되어 들어온 말이다.

(1) 史峰 主编, 《韩国语外来语词典》, 商务印书馆, 2002,  
중국어틀 외래어로 표기한 것은 있긴 하나 아주 적음, 자장면은 없음, “차이나”는 중국라고 해석, 차이니즈:중국인, 중국어,  
“차우<개>”를 中國狗

(2) 개정 증보판 <상용 외래어사전>, 월간 고국소식, 2004년  
(베이징 덕)

자장면은 없어

(3) “자장면”을 <그랜드 국어사전>(김민수, 금성출판사)에서는 기록, 중국어라고 표기했음. 1992년

자장면:(중)고기와 채소를 넣어 볶은 중국 된장에 비빈 국수.

(4) 연세 <한국어사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두산동아, 1998년

“자장면”으로 기록

## 【中文摘要】

本文所要谈论的重点是韩国所制定的现行“外来语标记法”(考虑韩国读者,援用韩文发音)对中国语(汉语)标记以及中韩翻译实践中所出现的一系列问题。韩国的“外来语标记法”自1948年以来已经进行了3-4次修改,最后一次是在1995年,此后沿用至今。由于至今没有对“外来语标记法”进行修改,所以存在不少与当今中韩翻译实际不相符的问题。主要是在中国的人名、地名以及岛、海、山、江河名称标记上,仍存在着其内容滞后的问题,因此急待探讨和修改。对此本文从如下几个方面阐述了自己的看法。

首先、阐述了对现行“外来语标记法”中的有关中国语(汉语)标记方面存在的问题。大体提出了四点问题:在现行的“外来语标记法”中所规定的界定古代人和现代人的界限界定的问题;有关地名的标记规定不明确的问题;关于岛、海、山、江河名称的标记上存在着有些不符合实际情况的问题;所谓外来语旁边要求表注“汉字”(实际上现在不提倡的繁体字)的问题。

其次、阐述了上述标记问题对中国的韩语学习者的中韩翻译实践及其教学指导工作的影响。主要以中韩翻译实践当中,所遇到的比较典型的问题来分析、阐明其“标记法”的不合理性。再次、针对这些情况提出了几点建议。如:修改“古代人与现代人界定”条款的建议;建议人名和地名继续使用汉字的读音法来标记,同时要求用现代中国文字(简体字)来标记;望标记中国的岛、海、山、江河名称时,不与韩国国内岛屿、山海、江河区别出来,而是以统一形式来标记;呼吁韩国政府和语言研究机关齐心协力研究相关问题,尽快拿出有效、得力的措施等。

最后、期待韩方尽快制定有利于中韩翻译实践的“外来语标记法”,以此积极促进中韩两国语言文化的交流与发展。这必将符合两国人民的共同利益和时代发展的新潮流。

现行“外来语标记法”,中国语标记规定,修改补充